

## 2017년 일본 민간경제조사기관의 일본경제전망

\* 이 자료는 추고큐(中國)전력에너지종합연구소가 일본의 14개 민간경제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주요 민간조사기관의 2017년도 경제전망」(2017.1.5.)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2016년 일본경제는 고수준의 기업수익과 고용·소득환경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민간설비투자자와 개인소비가 견조를 보인 동시에, 공공투자자와 수출도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등, 경기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지속
- 2017년에도 평균 112엔대의 환율을 유지하면서 개인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에 힘입어 1.2%의 실질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1. 2016년 일본경제 개황

- 2016년 일본경제는 신흥국경제의 감속과 영국의 EU탈퇴 문제, 미국 대통령선거 등, 해외 정치·경제 동향에 기인한 금융자본시장의 동요와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연간을 통해서 보면, 고수준의 기업수익과 고용·소득환경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민간설비투자자와 개인소비가 견조를 보임
- 공공투자자와 수출도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등, 경기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지속
  - 주요 항목별로 보면, 주택투자는 금융완화와 상속세 대책 등을 배경으로 아파트와 맨션을 중심으로 증가
  - 공공투자는 경제대책의 효과 등으로 호조를 보임
  - 개인소비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부진과 자연재해에 의한 악영향 등이 소비마인드를 위축시켜 일용품과 의류 등을 중심으로 절약지향성이 강했음
  - 그러나 서비스 관련 소비가 호조를 보인 외에, 내구소비재도 소비세 인상 등에 따른 가수요의 영향이 해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견조를 보임
  - 설비투자는 엔고진행으로 기업수익이 저조했으나 횡보권내에서 추이
  - 한편, 생산·수출은 중국과 여타 신흥국들의 경기감속에 따라 연초부터 약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경제의 호조 외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등 정보 관련 수요가 증가를 보여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 2. 2017년 일본경제전망

### 1) GDP 관련

#### □ 실질경제성장률

- 2017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은 평균 1.2%로, 일본의 14개 민간 경제조사기관이 모두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전망
  - 가계부문은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을 배경으로 개인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한편, 기업부문은 엔고 악영향의 일순에 따른 기업수익의 개선을 배경으로 설비투자가 회복될 전망

#### □ 민간소비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고용·소득 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경제대책(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료 인하, 저소득자에 대한 현금급부 등)의 효과도 있어 모든 기관이 2017년도의 실질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2017년 춘투에서는 임금인상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에너지 관련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물가의 상승압력에 따른 실질임금의 부진 등이 소비억제 요인으로 작용

#### □ 민간주택투자

- 낮은 수준의 주택론금리에 더하여 2015년 1월 상속세 개정에 따른 임대수요의 증가 등으로 2016년도에는 높은 증가율이 예상됨
- 2017년도에는 전년도의 반작용도 있어 대다수의 기관들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민간설비투자

- 2017년도 민간설비투자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재는 설비투자가 부진하나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한 인력절약·에너지절약과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품개발투자가 예상되는 외에, 2020년 동경 올림픽 등에 대비한 설비투자도 증가할 전망

## □ 공공투자

- 2017년도 공공투자는 2년 연속 증가할 전망(평균 4.2%)
  - 2016년도 경제대책에 포함된 공공사업 등 공적수요가 증가함으로써 2017년도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전망

## □ 실질수출(상품 및 서비스)

- 2017년도 수출은 미국의 소비증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내수회복 등으로 자동차 등 소비재 수출이 호조를 보일 전망
  - 모든 기관들이 5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평균 2.6%)
- 한편 세계적인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재·부품 등 설비투자 관련 재에 강점을 보여온 일본의 수출은 해외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달러화 강세 속에서 과도한 신흥국통화의 약세는 자금유출 우려 및 신흥국의 채무불안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감속으로 수출 감소로 이어질 우려와 보호무역적인 정책이 강화되는 경우 세계적인 무역침체·성장률저하 등의 리스크 등이 지적

## 2) 물가

- 일본은행이 2016년 11월에 공표한 경제·물가정세 전망에 의하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전년동기비)이 2%정도에 달하는 것은 종래 2017년 중에서 2018년도로 늦추어지는 등 예상대로의 물가상승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현재는 엔저가 진행되고 있어 엔저 및 경기회복에 따른 수급균형 개선을 배경으로 서서히 상승률을 높이는 외에, 2017년에는 에너지가격의 하락이 일순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는 상승할 전망
  - 다만 가계의 절약지향적인 자세를 반영하여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


## &lt;2016, 2017년도 일본경제전망 &gt;

단위 : 증가율(%)

	민간 14개 기관 평균		일본정부(내각부)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실질 GDP	1.2	1.2	1.3	1.5
개인소비	0.7	0.8	0.7	0.8
주택투자	6.3	-1.5	5.4	0.1
설비투자	1.5	2.0	2.1	3.4
공공투자	1.1	4.2	-	-
수출(상품·서비스)	0.9	2.6	0.8	3.2
수입(상품·서비스)	-1.5	1.9	-1.2	2.6
소비자물가지수	-0.2	0.8	0.0	1.1
경상수지(조엔)	19.4	19.1	20.2	23.6
엔화환율(엔/달러)	107.8	112.1	107.5	111.5

자료 : 추고큐전력에너지종합연구소, 「주요 민간조사기관의 2017년도 경제전망」(2017.1.5.)

## 3) 엔화 환율

- 2017년도의 엔화환율에 대한 12개 기관의 전망평균치는 112.1엔.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일시적인 엔고현상이 있었으나 트럼프 차기 대통령 하에서의 미국경제의 회복기대, 미국의 금융긴축에 대한 관측 등으로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은 1개월여만에 10엔 이상 엔저
- 각 전망기관들은 2017년도의 엔화환율을 현재와 같은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적극재정을 주장하는 점도 고려하여 FRB가 금융긴축을 계속 해나가면 미일간 통화량증가율 격차가 한층 확대되어 엔저·달러고 압력이 강해질 전망
  - 그러나 한편 세계경제와 글로벌금융시장의 장래 불투명성이 높아져 리스크 회피적인 엔화매입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lt;참고자료&gt;

1. 추고큐전력에너지종합연구소, 「주요 민간조사기관의 2017년도 경제전망」(2017.1.5)
2. 시치쥬시치은행, 「민간조사기관의 2017년도 일본경제전망」(2016.12.30)
3. 일본내각부, 「2017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2016.12.20)